

## 고시 「동성고차장」의 모의 양상 고찰

이규일\*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원작 「동성고차장(東城高且長)」
3. 육기의 「의동성일하고(擬東城一何高)」
4. 위응물의 「의고시십이수」 제 8수
5. 나오는 말

### 【초록】

본고는 육기(Lu Ji), 위응물(Wei Ying Wu)의 고시(Ancient Poems) 제12수의 모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 작품들의 특징과 창작의 중점을 고찰했다. 고시 제12수는 전후반부 연결의 부자연성 때문에 별개의 작품 두 편이 합쳐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육기와 위응물의 의고시는 모든 구절을 흡사하게 모의하면서도 위진남북조와 당대라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육기의 의고시는 원작의 시의(詩意)를 따라 내용을 전개하되, 작품의 언어적이고 형식적인 특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위응물의 의고시는 전후반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구를 다듬는 방식도 사용했지만 모의의 대상을 바꾸거나 전고의 성격을 바꾸어 자신의 감정이 의고시에 투영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육기의 창작보다 더 난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형식은 의고지만 내재적으로는 자신의 서정을 펼치는 창작이었다.

【키워드】 중국, 고시, 모의시, 육기, 위응물

\*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부교수 (bukchang291@hanmail.net)

## 1. 들어가는 말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는 동한 말기 하층 문인들이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19수의 오언시를 가리킨다. 당시 비슷한 풍격으로 지어진 작품들은 이 외에도 여러 편이 더 있지만 이 19수의 작품을 하나로 묶은 것은 남조(南朝) 양대(梁代) 소통(蕭統)의 『문선(文選)』이다. 이 작품들은 역대로 많은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鍾嶸의 『시품(詩品)』은 “일자천금(一字千金)”이라 했으며 유협(劉勰)은 “오언시의 관면(五言之冠冕)”이라고 했다. 그 뿐 아니라 후대의 문인들에게 『시경』처럼 시창작의 한 전형이 되어 인용, 또는 모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시십구수」를 모의한 작품은 위진남북조부터 명대, 청대까지 모든 시대에 등장했으며 조선의 많은 문인들도 「고시십구수」 모의작을 창작했다.

그런데 「고시십구수」는 연작시가 아니어서 각 작품마다 주제나 구성이 다르고 저자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청대의 심덕잠(沈德潛)은 “고시십구수는 한 사람의 글이거나 한 시대의 작품이 아니다(古詩十九首, 不必一人之辭, 一時之作)”라고 했고, 『옥대신영』에서는 서한의 매승(枚乘)이 지었다고 했다.<sup>1)</sup> 또 유협의 『문심조룡』은 부의(傅毅), 조식(曹植), 왕찬(王粲) 등을 저자로 보기도 한다. 이는 19수의 작품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도 있거니와 한 편의 작품에서도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작품이 「고시십구수」의 제 12수 「동성고차장(東城高且長)」이다. 후대의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두고 두 수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는 문제로 치열하게 논쟁했다. 그리고 평론가들의 평론과는 별도로, 후대 시인들의 모의 창작 역시 원작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작품 속에 담았다. 위진남북조 의고시 중에는 육기의 「의고시십이수(擬古詩十二首)」의 제 9수가 이런 류의 작품이다. 당대 의고시 중에는 유일하게 위응물의 「의고시십이수」의 제 8수가 「동성고차장」을 모의했다.<sup>2)</sup> 두 사람의 작품은 원작 「동성고차장」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다. 동시에 의고시 창작 속에 자신의 문학적 개성을 주입했다. 따라서 이

1) 『옥대신영』에는 「매승잡시구수(枚乘雜詩九首)」라는 제하에 「서북유고루(西北有高樓)」, 「동성고차장(東城高且長)」, 「행행중행행(行行重行行)」, 「섭강채부용(涉江采芙蓉)」, 「청청하반초(青青河畔草)」, 「난약생춘양(蘭若生春陽)」, 「정전유기수(庭前有奇樹)」, 「초초견우성(迢迢牽牛星)」이 수록되어 있는데, 「난약생춘양」을 제외한 8수는 『문선』의 「고시십구수」에 포함되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정전유기수」는 『문선』에 「정중유기수(庭中有奇樹)」로 수록된 작품이다.

2) 이백의 「의고시십이수」 역시 「고시십구수」의 특정한 작품을 모의한 연작시지만 「동성고차장」을 모의한 시는 없다.

두 작품은 「고시십구수」 연구사에서도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는 작품이며 나아가 후대의 모의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전대의 명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창작방식과 결합시켰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 2. 원작 「동성고차장(東城高且長)」

『문선』에 「고시십구수」의 제 12수로 수록된 「동성고차장(東城高且長)」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양성 동쪽 성벽은 높고도 길어, 굽이굽이 끝없이 이어진다  
 회오리바람 흩먼지 휩쓸며 일어나고, 푸르던 가을 풀은 벌써 시들었네  
 계절은 바뀌고 바뀌나니, 겨울은 어찌 이리 빨리 오는가  
 「신풍(晨風)」 시는 마음 괴로웠고, 「실蟀(蟋蟀)」 시는 조바심을 냈지  
 근심을 씻어내고 마음을 펼치자, 무엇하러 스스로 얹매이라  
 연나라 조나라에는 미인이 많아, 아름다운 얼굴 옥과 같다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창문 앞에서 청상곡(淸商曲)을 연주하네  
 우리는 선을 얼마나 슬픈가, 날카로운 고음에 안족(雁足) 바빠 움직이는구나  
 내 마음 이끌려 의대를 갖추다가도, 생각에 잠겨 다시 망설인다  
 바라노니 날아가는 제비 한 쌍이 되어, 진흙 물어다 그대 집 앞에 둥지 만들었으면  
 東城高且長, 逶迤自相屬. 迴風動地起, 秋草萋已綠. 四時更變化, 歲暮一何速. 晨風懷苦心, 蟋蟀傷侷促. 盪滌放情志, 何爲自結束? 燕趙多佳人, 美者顏如玉. 被服羅裳衣, 當戶理淸曲. 音響一何悲. 弦急知柱促. 馳情整中帶, 沉吟聊躑躅. 思爲雙飛燕, 銜泥巢君屋.

명대 육시옹(陸時雍)의 『고시경(古詩鏡)』은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좋은 시절은 사라지고 영락한 신세가 되었는데 짝이 없으므로佳人(佳人)을 그리워하며 마음을 기탁한다. 진흙을 물어와 둥지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뜻을 마음껏 풀어버리겠다는 행동이다. 조바심을 내며 마음 펼치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하지 못했으니 말할 것도 없다.<sup>3)</sup>

한국 학자 서성도 이 시에 대해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짧음을 느낀 사람이 늦기

3) “景馳年催, 牢落莫偶, 所以托念佳人, 銜泥巢屋, 是則蕩情放志之所爲矣. 踟躕不申, 祇以自苦, 百年有盡, 無謂也.” 張啓成·徐達 等, 『文選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p.1998.

전에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펼쳤다. 시경에 대한 전고와 정취로 보아 하급관리나 사인 계층의 사람이 지은 듯하다.”라고 했다.<sup>4)</sup> 이 시에서 사용한 전고는 제 7구의 ‘신풍(晨風)’과 제 8구의 ‘실술(蟋蟀)’이다. ‘신풍’은 『시경(詩經)·진풍(秦風)·신풍(晨風)』시를 말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람처럼 나는 저 새매, 울창한 북쪽 숲에 있네  
군자를 뵈지 못해, 근심 마음에 가득하네  
어이하어 어이하어, 실로 나를 오래도록 잊으셨도다  
歟彼晨風, 鬱彼北林, 未見君子, 憂心欽欽. 如何如何, 忘我實多.

정준영(程俊英)은 「신풍(晨風)」에 대해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것인지 의심하는 아내의 노래로 보았다. 새매도 숲으로 돌아올 줄 아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니 사람이 새매만도 못하다는 것이다.<sup>5)</sup> 제 8구의 ‘실술’은 『시경(詩經)·당풍(唐風)·실술(蟋蟀)』을 말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뚜라미 대청에서 우나니, 한 해가 저물었네  
지금 나 즐기지 않으면, 세월만 흘러가겠구나  
허나 너무 지나치지는 말지니, 말은 바 직분을 생각하라  
즐거도 지나치지 않도록, 어진 선비는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네  
蟋蟀在堂, 歲聿其莫. 今我不樂, 日月其除. 無已大康, 職思其居. 好樂無荒, 良士瞿瞿.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시의 전반부에 보이는 서정주인공의 심경은 다소 복잡하다. 낙양성이 배경인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관직에 있거나 관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한 해가 저물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세월의 무상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 「신풍」과 「실술」 시의 메시지는 이 서정주인공이 갖고 있는 고민의 두 축이다. 「신풍」은 멀리 떨어진 부부의 그리움에 대한 내용이고 「실술」은 지식인으로서의 직분과 책임감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 두 구에서 표현하는 시인의 고민은 ①사회적 성공을 단념하고 안락을 추구하려는 마음, ②직분과 책무를 생각하여 더욱 정진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이다. 그동안 서정주인공을 이끌어온 인생관은 후자였는데 추운 겨울이 오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한다.

그런데 이 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두 편의 시가 하나로

4) 서성 역주, 『양한시집』, 보고사, 2007, p.319.

5) 程俊英·蔣見元 著, 『詩經注析』, 中華書局, 1991, p.354, p.159.

합쳐진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처음 이 설을 제기한 것은 명대의 장봉익(張鳳翼)이다. 그는 『문선기주(文選綦注)』에서 이 작품의 총 20구의 내용 중 전반부 10구와 “燕趙多佳人” 이하 후반부 10구는 두 편의 시인데 “운이 같기 때문에 한 작품으로 오해한 것(因韻同故誤爲一耳)”이라고 했다. 그가 특히 주목한 점은 “促”을 운자로 중복해서 썼다는 점이다. 제 8구와 제 16구이다. 청대 유대괴(劉大樞)도 장봉익의 의견을 지지했고 현대 학자 여관영(余冠英) 역시 이 설을 지지하며 “의미에 연관성이 없고 정조가 일치하지 않는다(文義不聯貫, 情調不一致)”고 했다. 특히 여관영은 이 시가 어찌면 악부가사였기 때문에, 악부가사에서 종종 보이는 것처럼 두 시가 하나로 합쳐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많다. 우선 『문선(文選)』과 『옥대신영(玉臺新詠)』이 20구를 한 작품으로 수록한 점인데, 이 작품이 수록된 가장 초기의 판본이기 때문에 문헌학적인 관점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청대 학자들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何爲’구절은 위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끄니, 기세가 기와에 고인 물처럼 막힘이 없다…… 시격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sup>6)</sup>

고인의 시는 매 구절이 서로 관계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첫 구절에서 ‘東城高且長’라고 하고 이어서 ‘長’자로 ‘逶迤自相屬’의 구절을 만들어 ‘長’자의 기세를 충족시켰다. 또 ‘逶迤’에서 ‘回風動地起’의 구절을 만들었고 ‘地’자로 ‘秋草’ 구절을 만들어냈으며, ‘秋草’로 ‘四時變化’ 구절을 만들었고 ‘時變’으로 ‘歲暮速’ 구절을 만들었다. ‘速’자로 ‘懷傷’의 두 구절을 만들었고 ‘懷傷’ 두 글자로 ‘放情’의 두 구절을 만들었으며 ‘放情不拘’로 후반부의 내용을 만들었다. 참으로 하나의 기세가 서로 이어지며 끊이지 않았으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는가?<sup>7)</sup>

고시 「동성고차장」의 전반부 10구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상념이 일어나는 내용이다. 특히 제 7구에서 제 10구까지 시인이 그동안 입신양명을 위해 스스로 독려하고 분발했던 인생관에 회의를 품는 구절이 있는데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후반부 10구는 변화한 도시의 기루

6) 姜任修의 학설. “‘何爲’句東上領下，勢若建瓴……未可中分傷格。”朱自清·馬茂元，『朱自清馬茂元說古詩十九首』，上海古籍出版社 1999, p.124.

7) 張庚의 학설. “古人詩，句句相生，如此詩起雲‘東城高且長’，下則就‘長’字接‘逶迤自相屬’句，以足‘長’字之勢；就‘逶迤’字生出‘回風動地起’句；就‘地’字生出‘秋草’句；‘秋草’字生出‘四時變化’；就‘時變’生出‘歲暮速’句；就‘速’字生出‘懷傷’二句；就‘懷傷’二字生出‘放情’二句；就‘放情不拘’生出下半首。真一氣相承不斷，安得不移人之情？”，위의 책 p.124.

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노래하는 모습에 마음 끌리는 내용이다. 장봉익, 유대괴, 여관영 등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일관되지 않다고 본 것이고 강임수, 장경은 후반부의 내용이 “근심을 씻어내고 마음을 떨치자”는 제 9구 내용과 이어져 시인이 즐기기 위해 기루를 찾았다고 본 것이다. 현대 학자 마무원(馬茂元)은 전후반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促”자의 중복 각운(一韻重用)은 한대 악부고시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후반부 내용의 연결성, “促”의 중복 각운 외에도 이 시를 두 편의 작품으로 볼 만한 근거는 또 있다. 후반부의 첫 구절, “燕趙多佳人”의 구법이다. 이 구절은 한위(漢魏)시에서 도입부로 자주 등장하는 “XX有XX”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의 두 글자는 처소를 나타내고 뒤의 두 글자는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으로, “~에 ~가 있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고시십구수」 중에서도 「서북유고루(西北有高樓)」, 「정중유기수(庭中有奇樹)」가 이런 격식의 구절이 있고 이 구절들은 모두 시의 도입부이다. 건안 시에도 이런 구법으로 시작하는 작품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南山有大石(曹操, 「有南篇」)  
西北有浮雲(曹丕, 「雜詩」)  
高樹多悲風(曹植, 「野田黃雀行」)  
從軍有苦樂(王粲, 「從軍詩·1」)  
世俗有險易(繁欽, 「雜詩」)

이처럼 “XX有(多)XX”의 구법은 시를 시작하는 당시의 전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이 「동성고차장」의 제 11구를 새로운 시의 도입부로 보았다. 특히 후반부의 내용이 「고시십구수」의 제 5수 「서북유고루(西北有高樓)」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후반부가 「서북유고루」의 아류작(혹은 「서북유고루」가 이 후반부 시의 아류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한 것이다.<sup>8)</sup>

8) 「동성고차장」의 후반 10구와 「서북유고루」는 모두 [아름다운 여성→노래가 들려옴→아름다운 곡조에 주인공이 감동→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의 내용으로 전개된다. 「서북유고루」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북쪽에 높은 누각 있어, 꼭대기는 구름과 나란하네. 화려한 문양 아로 새긴 비단 창에, 여러 층 계단 위로 우뚝 선 누각. 아득히 들려오는 노래 소리, 그 소리 얼마나 슬픈가. 누가 능히 이 곡조를 부르랴, 설마 기량(杞梁)의 아내이라. 청상곡 바람 따라 울려 퍼지면, 곡조에 취해 나는 배회하네. 한 가락 올리면 두 번 세 번 탄식하고, 슬픔이 차올라 그치지 않네. 노래하는 이의 괴로움은 애통하지 않으나, 세상에 지음(知音) 드물어 가슴 아프네. 바라노니 한 쌍의 기러기 되어, 날개 펼치고 높이 날아올랐으면. (西北有高樓, 上與浮雲齊. 交疏結綺窗, 阿閣三重階. 上有絃歌聲, 音響一何悲. 誰能爲此曲, 無乃杞梁妻. 清商隨風發, 中曲正徘徊. 一彈再三歎, 慷慨有餘哀. 不惜歌者苦, 但傷知音稀. 願爲雙鴻鵠, 奮翅起高飛.)” 두 작품의 관계에 대해 왕강모(王強模)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사점은 ① 모두 실의한 남성 지식인이 서정주인공이라는 점, ② 노래하는 이가 여성이라는 점, ③ 음악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점이다. 차이점은

### 3. 육기의 「의동성일하고(擬東城一何高)」

「동성고차장」의 전후반부 연결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기한 가운데, 후인의 의고시가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청대 기윤(紀昀)의 의견이다.

이 아래의 내용은 무료하게 유흥을 즐기면서 감정을 맡기는 것이니 이른 바 “근심을 씻어내고 마음을 떨치자”의 내용이다. 육기의 의고시가 증명하고 있으니, 장봉익이 억설로 어지럽게 한 말은 근거가 부족하다.<sup>9)</sup>

기윤은 강임수, 장경의 의견에 동조한다. 그런데 기윤이 말하는 새로운 관점은 육기의 의고시가 근거라는 것이다. 의고시로 「고시십구수」 작품에 대한 관점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처음 제시되었다. 이는 육기의 의고시가 매 구절을 한 줄 한 줄, 최대한 똑같이 모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시를 모의한 육기의 작품은 「의동성일하고(擬東城一何高)」이다.

서산은 얼마나 험준한가, 층층 굽은 고개에 우뚝 솟은 봉우리  
차가운 이슬 하늘 가득 내리고, 혜초는 숲에서 시든다  
겨울과 여름이 이어지고, 시간은 흘러 홀연히 해가 지는구나  
삼려대부는 해 수레의 고삐를 쥐고, 원로들은 석양을 한탄한다  
어찌하여 세상의 일에 끌려다니나, 마음에 어긋남이 생기는 듯하네  
낙양에는 어여쁜 이들이 많아, 옥 같은 얼굴 구슬처럼 빛나네  
조용한 밤 거문고를 매만지면, 부드러운 소리 맑고도 슬퍼라  
긴 가락은 빠른 박자로 바뀌고, 슬픈 음색 고음을 달리네  
한 자락 부르면 만인이 기뻐하고, 다시 부르면 대들보 먼지를 날리네  
바라노니 원앙이 되어, 풍수(豐水) 물가에서 함께 노닐기를

① 「서북유고루」의 주인공은 적극적인데 「동성고차장」의 주인공은 소극적, ② 「서북유고루」의 노래 부르는 여성은 연민을 일으키는 성격인데 「동성고차장」은 그렇지 않고 미색만 강조됨, ③ 「서북유고루」는 “지음(知音)”의 부재가 시의 핵심적 사상인데 「동성고차장」은 평범함, ④ 「서북유고루」는 시에서 음악의 비중이 큰데 「동성고차장」은 주인공의 고뇌를 일으키는 기풍에 그침, ⑤ 「동성고차장」의 “내 마음 이끌려 의대를 갖추다가도, 생각에 잠겨 다시 망설인다(馳情整中帶, 沉吟踟躕)” 구절은 함축적인 면에서 매우 예술성이 높는데 「서북유고루」는 이런 구절이 없음. 『古詩十九首評譯』, 貴州人民出版社, 1991, pp.104-106.

9) 此(燕趙多佳人)下, 乃無聊而托之遊冶, 即所謂‘蕩滌放情志’也. 陸士衡所擬可以互證, 張本以臆變亂, 不足爲據.

西山何其峻, 層曲鬱崔嵬. 零露彌天墜, 蕙葉憑林衰. 寒暑相因襲, 時逝忽如頽. 三閭結飛轡, 大臺嗟落暉. 曷爲牽世務, 中心若有違. 京洛多妖麗, 玉顏侔瓊蕤. 閑夜撫鳴琴, 惠音清且悲. 長歌赴促節, 哀響逐高徽. 一唱萬夫歡, 再唱梁塵飛. 思爲河曲鳥, 雙遊豐水湄.

『문선』은 「잡의」 편목에 육기의 「의고시십이수(擬古詩十二首)」를 첫 번째 작품으로 수록했다. 위 작품은 12수 중 아홉 번째 작품이다. 종영의 『시품』은 육기의 작품이 모두 열네 수라고 했다.<sup>10)</sup> 그래서 『육기집』의 「가언출북궐행(駕言出北闕行)」, 「오유출서성(遨遊出西城)」 두 수를 나머지 두 수로 보는 의견도 있다.<sup>11)</sup> 또 육기 의고시 12수 중의 한 수인 「의난약생춘양(擬蘭若生春陽)」은 「고시십구수」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을 모의했는데 이 작품의 모의 대상은 『옥대신영』에 수록된 매승(枚乘)의 「잡시雜詩」 9수 중 제 5수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육기의 의고시는 고시의 원래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 의고시는 원작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품에도 고시 원작에 대한 육기의 시각이 담겨 있다. 육기의 의고시는 모든 구절을 원작과 비슷하게 쓰는 1:1 대응방식이기 때문에 후대 문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sup>12)</sup> 하지만 이 “구구답습(句句踏襲)”의 1:1 대응방식 때문에 육기의 의고시는 「동성고차장」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기운이 「동성고차장」의 20구를 한 작품으로 보면서 육기의 의고시가 근거라고 한 것은 육기의 의고시가 총 20구로 이 시를 모의했다는 점, 그리고 원작에서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을 육기의 작품이 명확하게 고쳤다는 점, ‘促’의 중복 각운 문제를 수정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육기 의고시의 기본적인 창작 원칙은 원작의 주제와 구성을 따르되,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통속적인 부분이 있으면 ‘격조 있게’ 고쳐서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sup>13)</sup> 본 논문의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던, 「섭강채부용」의 「還顧望舊鄉」의 구절을 육기의 의고시가 「故鄉一何曠」으로 바꾼 것은 서정주인공이 애매한

10) “陸機所擬十四首, 文溫以麗, 意悲而遠, 驚心動魄, 可謂幾乎一字千金”

11) 呂德申, 『鍾嶸詩品校釋』, 北京大學出版社, 2000, pp.27-29.

12) 이중화(李重華)의 『정일재시화(貞一齋詩話)』는 “육기의 의고시는 명성이 당대에 중했지만 나는 항상 그 것이 너무 경직되었음을 병으로 생각한다.(陸士衡擬古詩, 名重當世, 余每病其呆板.)”라고 했으며, 하상(賀裳)의 『시벌(詩筏)』은 “의고시는 반드시 옛 사람들의 신사(神思)에 가까운 듯해야 한다. 육기의 의고는 옛 사람들의 작품의 틀과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구절 답습했다.(陸士衡擬古, 將古人機軸語意, 自起至訖, 句句踏襲.)”고 했다.

13) ‘격조 있게’라는 표현은 미국 학자 스티븐 오웬의 표현을 따른 것이다. 그는 육기 시대 의고시의 창작 원칙을 이렇게 표현했다. “3세기 후반에 의가 나타나면서, 화제들과 그 순서는 몇몇 특정한 선행 텍스트 속에 고정되었고, 모든 주요 단어와 구절을 다르게 변주할 것이 요구되었다. 게다가 이 변주는 후대의 것이 언제나 ‘더 높은’ 격조를 가질 수 있도록, 격조의 위계를 보여줘야 했다.” 스티븐 오웬, 허경진 역, 『초기 중국 고전시의 형성』,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35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기의 의도였다. 「동성고차장」을 의고한 작품에도 이러한 육기의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는데 우선 제 4구의 표현이다. 원작의 “秋草萋已綠” 구절은 세월이 흘러 주변의 풀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 ‘萋’는 풀이 무성한 모습이고 ‘綠’은 풀이 푸릇푸릇 싱싱한 모습이니 가을의 묘사로는 어색하다. 그래서 ‘萋已綠’을 초가을 시든 풀과 시들지 않은 풀들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萋’는 ‘淒’와 통하고 ‘綠’은 풀인데 두 자가 도치되어 풀이 시들어간다는 뜻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up>14)</sup> 육기는 이 구절을 ‘蕙葉憑林衰’로 개조했다. 만물이 시든다는 가을의 의미도 선명해졌고 ‘蕙’를 사용함으로써 격조가 상승했다. ‘蕙’는 굴원이 자신의 고결한 충정과 인격을 표현했던 상징물이다. 「이소(離騷)」에도 “또 들 가득 혜초를 심었네(又樹蕙之百畝)”, “나 쫓겨난 것은 혜초를 들렀기 때문(既替余以蕙纁兮)”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동성고차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전후반부 내용의 단절감을 육기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자. 이 작품이 한 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육기가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 제 1구와 제 11구: 고시 원작은 제 1구와 제 11구에서 낙양성 동쪽(東城)과 연나라 조나라(燕趙)라는 별개의 두 공간이 배경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육기의 의고시는 이 부분을 서산(西山)과 낙양(京洛)으로 바꾸었다. 서산은 특정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낙양과의 거리감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② 제 9구와 제 10구: 원작은 “근심을 씻어내고 마음을 떨치자, 무엇하러 스스로 얽매이라(盪滌放情志, 何爲自結束)”라는 단정적인 어투가 등장하여 시상이 마무리되고 후반부와 단절되는 느낌이 강했다. 이 부분을 육기는 “어찌하여 세상의 일에 끌려다니나, 마음에 어긋남이 생기는 듯하네(曷爲牽世務, 中心若有違)”로 써서 단정의 뉘앙스를 크게 줄였다. 덕분에 후반부의 첫 구절 낙양 기루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③ 제 17구와 제 18구: 20구의 내용이 하나로 이어지려면 후반부 기루의 내용이 전반부 말미에 있는 인생관의 전환으로 생기는 향락 추구의 구체적 행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고시 원작의 제 17, 18구 “내 마음 이끌려 의대를 갖추다가도, 생각에 잠겨 다시 망설인다(馳情整中帶, 沉吟聊躑躅)”는 이런 내용으로 보기에 애매한 표현이다. 그래서 육기는 이 부분을 “한 자락 부르면 만인이 기뻐하고, 다시 부르면 대들보 먼지를 날리네(一唱萬夫歡, 再唱梁塵飛)”로 개조하여 기녀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묘사로 처리했다.

14) 전자의 해석은 『文選全譯』, p.1998, 후자의 해석은 『朱自清馬茂元說古詩十九首』, p.121.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육기가 「동성고차장」의 전후반부 연결의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는 어쩌면 육기가 활동했던 서진 시기의 공통적 인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육기는 원작의 주제와 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몇 부분 중요한 구절을 개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조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육기가 이 시를 별개의 두 편으로 보았다면 이런 방식의 모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육기의 시대는 원작 「동성고차장」이 창작된 시기에 가깝다. 적어도 『문선』이나 『옥대신영』보다는 약 300년 정도 가깝다. 그러므로 육기가 「동성고차장」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상기 내용과 같은 개조를 통해 의고 창작을 했다는 것은 기윤의 평론처럼 이 시를 둘러싼 후대의 논란, 즉 두 작품의 합본 여부의 문제에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4. 위웅물의 「의고십이수」 제 8수

청대 송락(宋攄)은 『만당설시(漫堂說詩)』에서 “완적의 「영회」, 진자양의 「감우」, 이백의 「고풍」, 위웅물의 「의고」는 모두 「고시십구수」의 전하는 뜻을 얻었다.”라고 했다.<sup>15)</sup> 당시 중 「고시십구수」를 모의한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은 진자양, 이백, 위웅물의 이 작품들이라는 것이다. 진자양의 「감우」는 모두 38수지만 첩자의 사용, 비홍의 기법 등 전체적 풍격에서 「고시십구수」를 계승했을 뿐 육기처럼 한 편씩 의도적으로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고차장」을 모의한 작품이 없다. 이백의 대표적인 의고시로는 「고풍(古風)」과 「의고십이수(擬古十二首)」가 있다. 「고풍」은 모두 59수로 「고시십구수」의 특정한 작품을 모의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의고십이수」는 육기의 의고시처럼 「고시십구수」의 특정한 작품을 모의한 연작시지만 「동성고차장」을 모의한 시는 없다. 위웅물의 의고시는 「의고십이수(擬古十二首)」가 있는데 그 중 「동성고차장」을 모의한 작품이 있다. 제 8수로 당시 중에서 대표작이자 유일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낙양성 높고 높은 곳, 아득히 바라보니 통하지 않는 길이 없네  
차가운 달빛 들뜬에 풀은 시들고, 고요한 하늘은 텅 비어 있다  
해와 달은 쉽 없이 운행하지만, 강인함과 유약함도 다할 때가 있다

15) “阮嗣宗「詠懷」、陳子昂「感遇」、李太白「古風」、韋蘇州「擬古」,皆得「古詩十九首」遺意.” 何文煥, 『歷代詩話統編』(第4冊),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p.501.

「분저(汾沮)」의 시인은 어찌하여 검소한가, 「고반(考槃)」의 시인은 어찌하여 물러나  
곤궁한가

뜻을 돌려 구속에서 벗어나리, 수고와 고생을 따르지 않으려네  
강남에 미인이 많아, 살짝 미소에 연꽃이 피네  
맑은 거울 보며 얼굴을 다듬고, 주름 걷어 규방을 나서네  
고태로운 노래에 흰 치아 드러나고, 춤추는 비단 옷자락에 바람이 크게 이네  
머뭇거리다 마음에 바라는 바 있어, 나를 위해 꽃을 주고 용모를 꾸미네  
아, 청루에 뜬 달빛, 그대 휘장에 그림자 드리우네  
神州高爽地, 遐瞰靡不通. 寒月野無緣, 寥寥天宇空. 陰陽不停馭, 貞脆各有終. 汾沮何鄙  
儉, 考槃何退窮. 反志解牽跼, 無爲尙勞躬. 美人奪南國, 一笑開芙蓉. 清鏡理容髮, 褰簾出  
深重. 豔曲呈皓齒, 舞羅不堪風. 慊慊情有待, 贈芳爲我容. 可嗟青樓月, 流影君帷中.

위응물의 의고시는 육기의 창작방식을 따랐다. 시의 내용과 구성으로 볼 때 「동성  
고차장」을 모의한 것은 분명하다. 시의 분량을 원작의 20구와 맞췄고 매 구 원작과  
1:1 대응하는 방식으로 창작했다. 전반부 10구는 시인의 상념과 인생관의 전환을 썼  
고, 후반부 10구는 기루의 미인을 묘사했다. 시 구조의 동일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제 1구~제 2구] : 공간적 배경을 제시.
- [제 3구~제 6구] : 세월의 흐름이 빠름을 묘사.
- [제 7구~제10구] : 『시경』의 전고를 사용, 인생관의 고민을 표현
- [제11구~제14구] : 시적 공간 이동으로 미인의 등장
- [제15구~제18구] : 미인의 노래에 마음이 끌림
- [제19구~제20구] : 미인과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을 표현

시의 주제와 전개방식, 언어적 표현이 원작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육기가 격조를  
높이는 방식으로 모의를 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조했듯, 위응물도 자  
신의 방법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격조와 완성도는 육기의 작품에 비해 더 높  
아진 느낌이다.

위응물 역시 육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가 전반부 10구와 후반부 10구 사이에 단절  
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의 통일성에 주의하여 원작을  
개조했는데, 우선 제 6구 “울곧음과 유연함 모두 다할 때가 있다(貞脆各有終)” 구절  
이다. 이 구절은 전후반부의 두 내용을 함께 포괄한다. ‘貞(울곧음)’이 전반부의 내용  
이고 ‘脆(유약함)’가 후반부의 내용이다. 청대의 진항(陳沆)은 이 구절을 전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았다.

‘貞脆各有終’ 구절이 작품 전체의 내용을 이끈다. ‘汾沮’와 ‘考槃’의 네 구절은 부(賦)의 형식이다. ‘美人南國’ 이하의 내용은 비(比)의 형식이다. ‘慊慊情有待’는 정숙하고 예를 지키는 법도를 말한 것이고 ‘流影君帷中’은 기루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나는 올곧고 다른 하나는 유연하니 이는 사물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물은 모두 끝이 있으니 현명한 자나 우매한 자나 다할 때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나는 왜 유독 비천함을 지키고 물러남과 곤궁함을 기꺼이 견뎌 부질없이 고생하며 구속을 벗어나지 못했는가?<sup>16)</sup>

고시 원작 『동성고차장』은 입신양명을 위해 평생 정진한 사인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안락을 추구하는 인생관으로 선회하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인생관은 서로 대립한다. 전자를 유가(儒家)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유가적이지 않다. 편의상 비유가(非儒家)적인 가치관이라고 하겠다. 위응물의 의고시도 동일한 구조이다. 제 9구, 10구의 내용을 보면 평생 스스로를 ‘구속(牽跼)’하며 유가적 가치관을 향해 정진한 인물이 자신의 인생에 회의를 느낀다. 진향이 “貞脆各有終” 구절을 전체 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 것은 ‘貞脆’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貞’으로 전반부의 유가적 가치관을, ‘脆’로 후반부의 비유가적 가치관을 개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貞脆各有終” 구절은 올곧고 숭고한 가치관을 지키며 사나, 유연하게 안락을 추구하며 사나 언젠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원작의 주제가 수준 높게 압축되었고, 시인이 고민하는 내용이 명확해졌다.

시인의 고민을 ‘貞脆’로 제시했기 때문에 후반부 기루 여성의 묘사가 전반부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성을 갖는다. 그리고 진향이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미색을 묘사한 부분도 ‘慊慊情有待’는 정숙하고 예를 지키는 법도, 즉 유가적 가치관에 입각한 묘사이고 ‘流影君帷中’은 기루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 즉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묘사이다. 유가적 가치관과 비유가적 가치관이 담긴 표현인 것이다. 『동성고차장』에서는 제 5구와 제 6구가 사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의(詩意)의 반복일 뿐인데 위응물 의고시에서는 제 6구가 제 5구 시의의 도약인 동시에 세상의 이치를 개괄하는 설리(說理)적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제 6구의 표현은 이 시의 경책인 셈이다. 원필도는 이 구절의 효과를 “청신하고 우아하게 아름답다. 끊어진 것 같으면서도 끊어지지 않으니 말하자면 연뿌리가 잘라졌어도 점액질이 실처럼 이어지는 것이다.

16) “貞脆各有終，領一章之旨。‘汾沮’、‘考槃’四句賦也。‘美人南國’以下，比也。‘慊慊情有待’，貞淑守禮之常。‘流影君帷中’，青樓自呈之態。一貞一脆，物性殊矣。然物各有終，賢愚同盡，我獨何爲守鄙賤，甘退窮，以徒自勞苦，曾不肯稍解其牽跼哉。”陶敏·王友勝 校注，『韋應物集校注』，上海古籍出版社，1998，p.18.

(清新雅麗, 絶而不絶, 所謂藕斷絲連也)”라고 평가했다.<sup>17)</sup> 날카로운 발견이다. 표면적으로는 ‘寥寥’, ‘慊慊’과 같은 첩자의 사용으로 원작의 예술적 형식미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작의 전후반부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섬세한 장치로 내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살렸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제는 후반부 여성에 대한 묘사가 조식(曹植)의 시를 모의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원굉도(袁宏道)가 제시한 관점이다.<sup>18)</sup> 여기서 말하는 조식의 시는 『문선』에 수록된 조식의 「잡시육수(雜詩六首)」 중 제 4수를 가리킨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국에 가인이 있어, 꽃다운 얼굴 도리(桃李)와 같아라  
아침이면 강가 북쪽 기슭을 거닐고, 저녁이면 상수 물가에서 잠든다  
세상은 어여쁜 얼굴을 가볍게 여기니, 누굴 위해 흰 치아 드러내며 웃을까  
잠깐 사이 한 해는 저물어, 꽃같은 청춘 오래 머물기 어려워라  
南國有佳人, 容華若桃李. 朝游江北岸, 日夕宿湘沚. 時俗薄朱顏, 誰爲發皓齒. 俛仰歲將暮, 榮輝難久恃.

고시 원작의 제 11구는 “燕趙多佳人”이고 조식의 이 시는 “南國有佳人”으로 모두 “XX有(多)XX” 구법이다. 모두 “~에 佳人이 있다”를 표현한다. 위응물의 시는 이 구법을 따르지 않고 美人과 지역의 위치를 바꾸어 “美人奪南國”으로 썼다.<sup>19)</sup> “XX有XX” 구법이 시의 도입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전후반부 흐름의 단절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동성고차장」은 여성의 미색을 묘사한 후 여성의 음악 연주가 시작되고 이에 매혹된 남성이 자신의 바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런데 위응물의 고시는 이런 서사성이 없고 여성의 우아한 자태를 묘사하는 데에 주력했다. 조식 작품의 풍격을 따랐다. 덕분에 조식 「잡시」의 정적인 느낌에 가까워졌다. 조식의 시는 여성의 미색을 ‘桃李’로 묘사했는데, 위응물은 ‘芙蓉’으로 묘사했다. 모두 격조 있고 고상한 느낌의 식물이다.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皓齒’ 역시 조식의 시에서 차용한 어휘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응물 의고시의 후반부가 조식의 「잡시」를 모의한 것은 명확하다. 다만 후반부의 분량을 「동성고차장」에 맞추어 10구로 했을 뿐이다. 외형은 「동성고차장」을 따르면서 내면적 정조는 조식의 「잡시」를 따른 것이

17) 상동.

18) 상동.

19) 위응물의 의고시가 ‘有(多)’가 아닌 ‘奪’을 쓴 것은 고시풍 미녀의 묘사에 ‘奪’, ‘傾’ 같은 성격의 글자를 쓰는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백이 시 중에 “西國有美女”로 시작하는 「고풍오십구수(古風五十九首) 27」에는 “高節不可奪”이란 구절이 있고, “燕趙有秀色”으로 시작하는 「감흥팔수(感興八首) 6」에는 “一笑傾城歡”이란 구절이 있다.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응물은 왜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필자는 그 이유가 우선 고시 원작의 치명적인 약점, 전후반 주제의 연결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작 고시에서 묘사하는 여성은 서정주인공이 추구하는 인생의 안락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아름다움은 감각적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조식의 「잡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우아함과 기품 같은 내적 아름다움이 더 부각된 형상이고, 능력을 가졌으나 군주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인재의 비유이다. 조식 시의 첫 구절 “南國有佳人”에 대해 이선(李善)은 ‘南國’이 강남(江南)을 가리킨다고 했고, ‘佳人’도 『초사(楚辭)』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이주한(李周翰)은 ‘佳人’이 “현인이 시대의 중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비유했다(喻賢人不見重於時)”고 했다.<sup>20)</sup> 이선과 이주한은 당나라 고종, 현종 때의 인물이기 때문에 「잡시」의 여성 묘사가 회재불우의 정조를 가진 현인의 비유라는 것은 위응물을 비롯한 당시인들의 공통된 인식일 것이다. 위응물 작품의 여성이 조식 시의 여성 이미지를 차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수(湘水)와 관련된 인물인 굴원, 그리고 굴원의 상징인 충절을 연상시키는 효과가 생겼다. 이 충절은 시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인의 고민, ‘貞’으로 표현한 올곧고 숭고한 가치관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그래서 시 후반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회의하고 부정했지만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유가적 지식인의 고민과 모순이다. 단순히 안락을 생각하는 남성의 방황이 아니다. 전후반부 내용의 흐름이 한층 자연스러워졌고 시의 주제도 무거워졌다.

위응물의 의고시가 조식의 「잡시」를 모의한 또 하나의 이유는 「동성고차장」 후반부의 여색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성고차장」의 주제에 대한 강력한 학설 중 하나는 이선(李善), 장선(張銑) 등의 정치풍자설이다.

이선: 성이 높고도 길기 때문에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다. 왕일(王逸)의 『초사장구』주는 ‘透迤’는 길게 늘어진 모습이라고 했다.(城高且長, 故登之以望也. 王逸楚辭注曰, 透迤, 長貌也)

장선: 이 시는 소인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군주의 밝음을 가려 현인이 등용되지 못하는 것을 풍자했다. 봄은 만물을 양육하는 바이며 성은 사람들을 거주하게 할 수 있으니 군주를 비유했다.(此詩刺小人在位, 擁蔽君明, 賢人不得進也. 東春也, 所以養生萬物, 城可以居人, 比君也)<sup>21)</sup>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 서정주인공이 갖고 있는 인생관의 전환은 단순히 인생

20) 蕭統 編, 李善·呂延濟·劉良·張銑·呂向·李周翰 注, 『六臣注文選』, 浙江古籍出版社, 1999, p.530.

21) 상동, p.522.

의 안락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해소하려는 방향이 될 것이다. 육기의 의고시도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전고를 사용하는 제 7구, 제 8구에서 굴원의 이미지를 등장시켰을 것이다.<sup>22)</sup> 하지만 육기는 후반부를 여성의 성적 매력에 집중하여 묘사했고, 마지막 구절에서 남녀의 즐거움을 찾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원앙(河曲鳥)을 쓴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육기의 의고시는 「동성고차장」에 은은히 투영된 굴원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에 반해, 조식의 「잡시」에 묘사된 여성의 형상은 굴원이 창조한 “香草美人”, “美人遲暮”의 성격이 농후했기 때문에 「동성고차장」의 정치 풍자에 대한 뉘앙스를 살리기에 적합했다. 위응물은 육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조식의 「잡시」를 따랐기 때문에 서정주인공의 내적 고민을 『초사』의 중요한 주제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절망, 군주에 대한 충절 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앞서 말한 ‘貞’의 올곧은 가치관에 가까운 것이다.

또 위응물의 의고시가 원작과 다른 표현방식을 취한 부분은 시의 마무리인 제 19구, 제 20구이다. 원작 「동성고차장」과 육기의 의고시 「의동성일하고」는 “한 쌍의 제비”, “한 쌍의 원앙”을 소재로 남녀의 즐거움을 얻고 싶은 바람을 표현했는데 위응물은 달빛이 휘장에 비친다는 전혀 다른 내용을 썼다. 이는 버려진 신하가 여전히 군주를 그리워한다는 『초사』의 전통적 주제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고시십구수」 제 5수인 「서북유고루」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만들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성고차장」의 후반부를 독립된 시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후반부의 10구와 「서북유고루」의 유사성이다. 「서북유고루」의 마지막 구절은 “바라노니 한 쌍의 기러기 되어, 날개 펼치고 높이 날아올랐으면(願爲雙鴻鵠, 奮翅起高飛)”로 「동성고차장」, 「의동성일하고」와 너무 유사하다. 이 점은 육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위응물의 창작이 더 철저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고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원작의 제 7구, 제 8구에서 『시경』의 「신평(晨風)」편과 「실솔(蟋蟀)」편을 인용한 자리에 위응물은 『시경』의 「분저여(汾沮洳)」편, 「고반(考槃)」편을 인용했다. 원작의 두 전고가 서정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두 가지 욕구의 충돌을 표현하는 것처럼, 위응물이 사용한 두 전고도 위응물 의고시의 두 가지 가치관, 즉 ‘貞’과 ‘脆’와 관련된 것이다. 다음은 『시경·위풍(魏風)·분저여(汾沮洳)』의 내용이다.

22) 육기 의고시의 이 구절은 “삼려대부는 해 수레의 고삐를 쥐고, 원로들은 석양을 한탄한다.(三閭結飛轡, 大耋嗟落暉)”이다. 삼려대부는 굴원의 관직명이었고 고삐(轡)는 「이소」의 “함지(咸池)에서 나 말에게 물을 먹이고, 부상(扶桑)에 와 고삐를 매어 두네(飲余馬於咸池兮, 總余轡乎扶桑)” 구절에서 왔다.

저 분수 가의 진필에서, 푸성귀를 캔다  
 저 기씨 집안의 자제는, 아름답기 그지 없다  
 아름답기 그지 없으나, 귀족 자제답지 못하도다  
 彼汾沮洳, 言采其莫. 彼其之子, 美無度. 美無度, 殊異乎公路.(『분저여』 제 1장)

「모시(毛詩)」는 이 시의 내용을 “군자가 검소하고 근면하지만 너무 지나쳐 예를 얻지 못함을 풍자했다”고 보았다.<sup>23)</sup> 다음은 『시경·위풍(衛風)·고반(考槃)』의 내용이다.

산골짜 개울가에 집을 열고 사니, 크고 훌륭하신 분 마음 한가롭다  
 혼자서 자나 깨나 하는 말이, 영원히 맹세코 잊지 않으리라  
 考槃在澗, 碩人之寬. 獨寐寤言, 永矢弗諼.(『고반』 제 1장)

「모시(毛詩)」는 이 시의 내용을 “위나라 장공이 무공의 위업을 잊지 못하여 현자로 하여금 물러나 곤궁하게 살도록 한 것을 풍자했다”고 보았다.<sup>24)</sup> 「분저여」편의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고 근면한 것은 유가적 가치관이니 ‘貞’의 내용에 속한다. 또 「고반」편의 “물러나 곤궁하게 사는” 것은 유가적 가치관과 상대적이니 ‘脆’의 내용에 가깝다. 「고반」편의 내용을 보면 은둔하여 살면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유유자적한 정취로 가득 차 있고, 은거를 예찬하는 성격이 강하다.<sup>25)</sup> 이를 볼 때 원작 「동성고차장」의 「실술」편과 위응물 의고시의 「분저여」편은 성격이 통한다. 그리고 「신평」편과 「고반」편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구체적인 맥락은 다르다. 「동성고차장」이 「신평」편을 인용한 것은 남녀의 그리움을 언급하여 향락의 내용으로 연결하기 위함이었고, 후반부 여성에 대한 묘사, 여성과 함께 하려는 서정주인공이 옥구 등의 내용은 이런 복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위응물 의고시에서는 남녀관계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은거를 예찬했다. 위응물 의고시의 서정주인공이 갖고 있는 고민은 「동성고차장」의 서정주인공과 다르다.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다. 시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성의 형상이 『초사』의 “향초미인” 이미지에 가까운 것도 은자(隱者)의 정신적 정취

23) 程俊英·蔣見元 著, 『詩經注析』, 中華書局, 1991, p.291.

24) 상동, p.159.

25) 이 작품에 대한 정상홍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역대로 이 시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현자가 계곡 사이에 은둔하여 살면서도 마음이 크고 넓어 슬퍼하는 뜻이 없는 것을 찬미한 것으로, 홀로 잠들고 홀로 깨어나 말하지만 오히려 이 즐거움을 잊지 않기를 스스로 맹세한다는 것이다.(『집전』) 즉 은자의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그린 시라고 하였다.” 정상홍, 『시경』, 을유문화사, 2014, p.280.



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위응물이 원작 「동성고차장」의 주제인 ‘직분에 대한 정진’과 ‘안락에 대한 추구’ 사이의 고민을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으로 바꾼 것은 위응물 본인의 인생 고민이 투영된 결과이다. 위응물은 안사의 난이라는 당나라 역사의 전환점을 거쳤고 홍성에서 쇠락으로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를 경험했다. 본인의 인생 역정도 출사와 퇴은(退隱)을 무수히 반복했다. “한 번, 또 한 번 출사했다가 한 번, 또 한 번 물러나 불사(佛寺)에서 한거하는 것이 위응물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이었다.”<sup>26)</sup> 위응물의 대표작은 대체로 안사의 난 이후인 인생 후기의 작품들인데 젊은 시절 작품에 나타나는 포부와 적극성 등은 사라지고 자연의 미와 한적한 정취를 표현한 내용이 주류이다. 위응물 의고시에는 원작에는 없는 “나(我)”라는 시어가 등장한다. 자신을 지칭하는 시어는 육기의 의고시에도 나오지 않는다. 개성의 표현을 중시하는 당시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위응물이 서정주인공의 형상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의식을 더 깊이 담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 5. 나오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시십구수」 제 12수 「동성고차장(東城高且長)」과 육기, 위응물의 모의작을 분석하고 이 작품들의 특징과 창작에서 중점을 고찰했다. 「고시십구수」는 후대 시인들에게 창작의 전범이 되면서 무수히 재창조 되었는데 시기별, 시인별 독자적인 특징과 창작의 중점이 존재한다. 「동성고차장」은 전후반부 연결의 부자연성 때문에 별개의 작품 두 편이 합쳐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육기와 위응물의 의고시는 모든 구절을 흡사하게 모의하면서도 전후반부를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이는 청대 기운의 의견처럼 이 시가 원래 한 편이었다는 근거가 되는 점이다. 육기와 위응물의 의고시는 매 구절을 최대한 원작과 똑같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위진남북조와 당대라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고차장」의 전후반부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작업도 육기는 주로 시구를 다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예를 들면 제 1구와 제 11구에서 낙양성 동쪽(東城)과 연나라 조나라(燕趙)라는 두 공간적 배경을 서산(西山)과 낙양(京洛)으로 바꾼 것, 제 9구와 제 10구의 단정적인 어투를 완화한 것, 제 17구와 제 18구 서정주인공의 감정 표현을 음악 묘사로 바꾼 것 등이다. 이런 작업은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한층 격조 있게 수정

26) 『韋應物集校注』, 「前言」, p.2.

하는 작업과 병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육기의 의고시는 원작의 시의(詩意)를 따라 내용을 전개하되, 작품의 언어적이고 형식적인 특징에 중점을 둔 창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응물의 의고시는 전후반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구를 다듬는 방식도 사용했지만 모의의 대상을 바꾸거나 전고의 성격을 바꾸어 자신의 감정이 의고시에 투영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육기의 창작보다 더 난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형식은 의고지만 내재적으로는 자신의 서정을 펼치는 창작이었다.

「고시십구수」를 모의하는 창작은 이후 명청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조선에서도 상당히 성행했다. 풍격만 모의한 작품도 있고 육기, 위응물처럼 19수를 한 편 한 편 모의한 작품도 있다. 본 논문은 「고시십구수」 중 「동성고차장」 1수에 대한 두 편의 모의시를 고찰하는 데에 그쳤지만 향후 나머지 11수에 대해, 또 시대도 송, 원, 명, 청 시대까지 두루 확충시켜 전면적으로 고찰한다면 후대인들이 「고시십구수」의 어떤 점을 창작의 교과서로 인식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陸 機, 金濤聲 點校, 『陸機集』, 中華書局, 1982.  
 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中華書局, 1995.  
 程俊英·蔣見元, 『詩經注析』, 中華書局, 1991.  
 王强模, 『古詩十九首評譯』, 貴州人民出版社, 1991.  
 張啓成·徐達 等, 『文選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蕭 統 編, 李善·呂延濟·劉良·張銑·呂向·李周翰 注, 『六臣注文選』, 浙江古籍出版社, 1999.  
 陶 敏·王友勝, 『韋應物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朱自清·馬茂元, 『朱自清馬茂元說古詩十九首』, 上海古籍出版社 1999.  
 葛曉音, 『先秦漢魏六朝詩歌體式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2.  
 서성, 『양한시집』, 보고사, 2007.  
 정상홍, 『시경』, 을유문화사, 2014.  
 스티븐 오웬, 허경진 역, 『초기 중국 고전시의 형성』,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규일, 「문선 수록 잡의시 창작유형」, 『중국학논총』, 59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18.08.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中國, 古詩, 模擬詩, 陸機, 韋應物				
Key Words	영문	China, Aancient poems, mock works, LuJi, WeiYingWu				
<div>The Research on Mock Works of the 12th Ancient Poems</div> <div>Lee, Kyu-Il</div> <p>This study analyzed the mock works of 12th ancient poems by LuJi and WeiYingWu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works and the focus of creation. The 12th ancient poems were evaluated as a combination of two separate works due to its unnaturalness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half. The pseudo-classical poetry of LuJi and WeiYingWu reflect th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 Wei Chi Nan Bei Dynasties and the Tang age while simulating all the passages. The pseudo-classical poetry of LuJi unfolded the content according to the meaning of the original poem, but focused on the linguistic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However, The pseudo-classical poetry of WeiYingWu also used a method of refining the first and second half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nnection naturally but he changed the subject of the simulations or changed the nature of the ancient books so that his feelings were reflected to the pseudo-classical poetry. This was a more difficult task than LuJi’s, and it was a creative process that unfolded its own lyricism immanently, although the format was pseudoclassicism.</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규일 / 李揆一 / Lee, Kyu-Il				
	소 속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Em@il	bukchang291@hanmail.net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04.08	심 사 일	2020.05.25	게재확정일	2020.06.11